

3/21/21

설교 제목: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다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45 장 1-28 절

- (창 45:1)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 (창 45:2)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절관주** 창 45:14, 창 46:29
- (창 45: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절관주** 행 7:13
- (창 45: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에 판 자라 **절관주** 창 37:28
- (창 45:5) 당신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창 45: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 (창 45: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 (창 45: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절관주** 창 41:43
- (창 45:9) 당신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 (창 45:10)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 (창 45:11)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 (창 45:12)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 (창 45:13)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절관주** 행 7:14
- (창 45:14)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 (창 45:15)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 (창 45:16)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 (창 45:17)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 (창 45:18)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절관주** 창 27:28
- (창 45:19)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
- (창 45:20)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 (창 45:21)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 (창 45:22)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절관주** 왕하 5:5, 창 43:34
- (창 45:23)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 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 (창 45:24)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 (창 45:25)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 (창 45:26)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절관주** 시 126:1
- (창 45:27)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 (창 45:28)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요셉은 형들이 처음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단 번에 그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또 도둑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의 형제애와 책임감을 테스트 해 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테스트를 통해 20 여년 전 동생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은 20 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가슴에 묻어 둔 죄를 끄집어내 회개하게 됩니다.

그 후 아버지가 편애하는 말쑥 동생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 애굽에 홀로 종으로 남겨져야 하는 상황에 물리게 되자 모든 형제들이 종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특히 네째 유다는 베냐민만 남겨두고 모두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셉의 말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합니다.

형제들은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다는 완전히 변하여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 년 전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던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데 앞장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시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창 44:33)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창 44:34)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본 요셉은 가슴이 뜨거워져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창 45:1)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창 45:2)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창 45: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시종하는 자들을 모두 물리친 후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형제들은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에 자신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서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이제 자신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창 45: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창 45: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 45: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창 45: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신을 애굽에 판 것으로 인해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의 날이 올 줄 미리 아시고 형제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자신을  
앞서 이곳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형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에 참여시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후손과 땅,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을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중 후손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들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그들 후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 총리 지위에 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4 대 동안 애굽에서 산 후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다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 27:26)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창 27:27)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창 27: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 27: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거쳐 지금 자신에게서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 45: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바로의 아버지이고 그 온 집의 주라니요?

요셉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아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 (창 9: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 (창 9:19)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 (창 9: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 (창 9: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 (창 9: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 (창 9: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 (창 9: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 (창 9: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 (창 9:26)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 (창 9: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 언약은 함의 후손이 셈의 후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함의 후손 중 가나안의 아들들은 주로 가나안에 살았지만 애굽에 살았던 이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조가 대부분 함의 후손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이 노아 언약의 성취입니다.

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 애굽에 셈의 후손이 들어 와서 주가 되는 것입니다.

함의 후손인 바로가 종이 되고 셈의 후손인 요셉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후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창 47: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창 47:8)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나

(창 47: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창 47:10)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축복이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인데 곡식이 없어 이주해 온 객인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가가 식량이 없어 애굽으로 들어감으로써 셈의 후손이 함의 땅에 얻어 먹으러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셈의 후손이 함의 후손들의 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들어왔을 때 그가 온 집의 주가 될 줄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신 역사였습니다.

(시 105:17)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시 105:18)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시 105:19)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요셉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겉으로는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온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시 105:23)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이여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요셉은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후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기근이 아직 5 년이나 남았으니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창 45:9)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창 45:10)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창 45:11)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물론 이 모든 것이 바로의 명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미 주는 요셉입니다.

(창 45:16)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창 45:17)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창 45:18)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형제들을 보내면서 수레와 양식과 옷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옷 다섯 벌과 은 삼백을 줍니다.

그렇지라도 형들은 베냐민을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회개하고 변해 있었고 또 자신들이 받은 용서와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언약을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참여시키기 위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 언약에 참여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